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이보균 대표이사,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여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대표이사는 11월 1일 외국인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장관 표창은 평창 축산관련 연구기술 개발과 평택 당진의 첨단 시설 공장 건설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보균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고,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967년 설립이래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축산사료업계의 리더 역할을 해왔으며, 새로운 해외 투자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발전된 기술과 우수하고 안전한 품질의 제품으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 (주)고려비엔피

■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기관 인증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 기술연구소는



지난 10월 3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광견병 표준연구소로부터 광견병 중화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공식 검사기관 인증을 받았다.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기관 인증으로 인해 당사 기술연구소에서 검사한 광견병 항체가 결과를 전세계 국가에서 공신력 있는 법적인 공인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감염되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 고양이 및 너구리 등 대부분의 포유동물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야생 너구리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질병이다.

| 한국화이자동물약품

■ '해외전문가 초청 양계 세미나 개최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은 지난 10월 12일 천안 흥익대 국제연수원에서 '해외전문가 초청 양계 세미나'를 열고, 최근 양계질병 동향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구일러모 자바라 조지아대학 교수는 마렉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종란접종 기술, 대장균증의 발생과 대응방안 등이 소개됐다. 특히 자유토론을 통해 국내에서 문제되는 닭 질병을 공유했다.

| 서부사료(주) · (주)트루라이프

■ 캔미팅 개최



2012년 서부사료(주)·(주)트루라이프(회장 정세진) 캔미팅(Can-Meetin)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김포시 효원문화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캔미팅은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 간 결속을 다지고 각 사업부별 경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부사료와 트루라이프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부그룹 정세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아 협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며 “이번 캔미팅은 서부그룹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해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의 열정으로! 서부의 미래로! Desire! Desire! Desire!’ 라는 슬로건 아래 실시된 이번 행사는 1부에 ▲미션찾기 ▲직급 롤 플레이 ▲요리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직급·부서간 벽을 허물고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2부 주제별 분임 토의 순서에는 6개조로 나눠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의 열띤 토론으로 구성원과 경영진 모두가 공감하고 경영전략에 반영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기됐다.

서부그룹은 장소, 직급, 직함을 떠나 맥주나 음료 등을 마시며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해 해결책을 찾는 독특한 회의 방식인 ‘캔미팅(Can-Meeting)’ 형식의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여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캔미팅에서 나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은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등 서부그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 두산생물자원(주)

■ 영업회의 실시

두산생물자원(대표이사 윤영호) 백두사료 영업 본부는 지난 9월 17일 부천공장 교육장에서 영업 회의를 실시했다.

본 영업회의에서는 사전에 진행되었던 대표이사와의 간담회의 이슈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고 향후 조직운영계획 및 방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채권관리 교육시간을 통해 채권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축종별로는 각 PM들이 고 곡물가에 따른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료의 허실과 낭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했다.

백두사료는 각 시대의 이슈에 맞는 맞춤교육과 가이드 제시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농가의 NEEDS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업사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 백두사료 동절기대비 방역 실시



두산생물자원 백두사료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으로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병예방 교육과 동절기 대비방안 지침을 통해 철저한 농가 사양관리를 컨설팅함으로써 환

경변화에 빠른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백두사료 관계자는 “이런 발빠른 움직임이 축산농가에 전달되어 건강한 축산농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부고

박영인 전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영면



박영인 전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10월 3일(현지시각)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산 정상에서 하산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향년 76세로 별세

했다.

고인은 1936년 충남 부여 출생으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뉴질랜드 매시대학원에서 식품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또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건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미국곡물협회 한국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 세계식량농업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과 뉴질랜드의 양국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미국곡물협회 한국회장으로 봉직할 당시 한국 축산 발전을 위해 선진지 견학과 시찰 등 선진축산기술을 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1982년 ‘자조금’이란 용어를 처음 만들었으며 1992년부터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를 창립해 국내에 농업자조금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헌신했다. 또한 가족계열화에 사업 정착에도 큰 기여를 했다.